

##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10. 29.

금 융 위 원 회

### 1. 금융시장 현황 점검

- (증시)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,  
코스피는 22개월만('17.1.2일 2,026pt)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 
코스닥 역시 12개월만('17.10.16일 659pt)에 최저치임
  - \* 코스피 : '17년말 2,467pt → '18.10.26일 2,027pt(Δ17.8%↓)
  - \* 코스닥 : '17년말 798pt → '18.10.26일 663pt(Δ17.0%↓)
- 최근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 
다소 높은 하락율을 보였는데
  - \* '18년 주가 상승률(%) : (한국) Δ17.8, (중국) Δ21.4, (대만) Δ10.8, (태국) Δ7.1,  
(말레이시아) Δ6.3, (인도네시아) Δ9.0
- 특히,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 
Δ6.7조원을 순매도했으며  
특히, 10월에만 Δ4.5조원\*을 순매도해  
증시의 변동폭이 커졌음
  - \* '18.10월 외국인 코스피 Δ3.8조원, 코스닥 Δ0.7조원 순매도
- (채권) 채권의 경우 금년 들어  
외국인 채권자금은 순유입(+13.3조원)되다가,  
9월 이후 채권의 만기도래 등으로  
소폭 순유출\*로 전환되었음
  - \* ('18.9월) Δ1.9조원, (10.1~26일) Δ0.6조원 순매도
- 그러나, '16년 브렉시트 투표, '17년 북핵실험 때와  
비교해 채권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음
  - \* 외국인 채권자금: ('16.6월~12월) Δ9.7조원, ('17.8월~12월) Δ7.8조원

## 2.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 원인

- 최근 국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 
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
- ① 우선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 
통화 확대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 
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음
  -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 
금년 말 예정대로 ECB가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에 대비해  
글로벌 금융시장에서  
국제투자 자금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- ② 또한, 무역분쟁으로  
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  
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 
기업의 실적이 저조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며,
  - 무역분쟁, 금리인상 등으로  
최근 상황이 좋았던 미국경제마저  
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 
최근 증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- ③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의 3대 축인 유럽 역시  
하드 브렉시트 가능성,  
이태리의 재정적자 확대 시도 등  
부정적인 소식이 겹쳐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

- 이처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되면서  
IMF 등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음

## 3. 우리 경제 및 금융 여건 점검

- 최근 성장을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 
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,  
아직까지 우리경제는  
견고한 기초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
- ①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
  - ①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수출실적 등에 힘입어  
아직까지 2%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 
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,  
\* '18년 경제성장률 전망(%): (한은) 2.7 (IMF) 2.8 (OECD) 2.7
  - ② 경상수지\* 역시  
'12.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,  
재정수지\*\*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함  
\* 경상수지 흑자폭(달러) : ('15년) +1060억, ('16) +992억, ('17) +785억  
\*\* GDP 대비 재정수지(%) : (선진국) △2.2%, (신흥국) △4.3% (한국) +2.3%
  - ③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 
환율이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 
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

< 주요 신흥국 CDS 프리미엄 (10.25일기준) >

한국	중국	브라질	멕시코	인도	인니	터키
39.7	70.6	212.3	133.6	108.6	155.6	357.6

## ② 미시적 측면에서도

우리 경제·금융시장의 지표는 양호함

- 은행의 단기 외채 비중, BIS 비율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

(억달러)	'08.9월	'18.6월	증감
단기외채비중(예금취급기관)	72.6%	48.6%	△24.0%p
BIS 비율	10.87%	15.48%	+4.47%p
기본자기자본 비율	8.33%	13.38%	+4.97%p

- '16년부터 대외 순채권상태로 전환\*됨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버퍼(buffer)도 충분한 상태임

\* '18.6월 예금취급기관 대외채권 2,084억달러, 대외채무 1,875억달러

- 국제기구나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한국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

- IMF 등은 美-中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감소 우려 등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으나, 여전히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평가하고 있고

\* 18년 성장률(IMF 3.0%→2.8%, OECD 3.0%→2.7%, ADB 3.0%→2.9%)

-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건전한 대외건전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“안정적”으로 유지하고 있음

\* 무디스 Aa2, S&P AA, Fitch AA-

- 또한,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역시 비우호적인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 및 견조한 수출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

## 4. 종합 평가

- 이처럼 국내외적으로

한국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평가받지만  
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

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현재화될 경우

우리경제 및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

- 특히, 주요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 동안 각국 중앙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어 상승했던 자산가격이 재조정되고 시장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

- 그러나,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이유가 없음

- 그동안 미국, 유럽 등의 증시는 유동성 완화 시기에 오름폭이 컸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도 증시의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

- 그리고,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인 PBR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아 앞으로의 조정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\* '18.10.25일, 주요시장 PBR(배) :

(코스피)0.86, (다우)3.90, (홍콩)1.19, (싱가폴)1.05, (중국)1.40, (대만)1.52, (일본)1.69, (영국)1.68, (독일)1.58, (프랑스)1.54, (이태리)1.03

□ 요약하면, 글로벌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에 기댄  
글로벌 동반상승 국면에서  
각 국의 기초체력에 따른 차별화된 장세로 전환 중임

-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 
유동성에 의존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았고  
우리 기초체력 역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하므로  
이번 조정국면이  
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

□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함

- 주식시장에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 
우리나라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본다는 것을  
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,  
대외여건이 악화되면  
우리나라의 기초여건과 무관하게  
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아쉬움도 있음
- 이럴 때일수록 분석능력과 자금여력이 있는  
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함
  - 기관투자자는 기업 가치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 
자금여력도 충분하므로  
우리나라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짚어보고  
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면  
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 
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끌어 가는  
균형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

## 5. 향후 대응방안

□ 정부도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

- ①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 
5,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음
  - 당초 올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 
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의 규모를  
올해 3,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 
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초부터 투자하겠음
- \* 당초 올해 2천억원, 내년 1천억원 예정이었으나, 이미 올해 1,850억원이  
모집된 만큼 조속히 3000억원 펀딩을 마무리하여 11월 초 부터 운용 개시
- 또한,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 
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 
최소 2,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 
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 
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음

□ 이와 더불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 
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음

- ① 우선,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 
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 
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 
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·과징금을 신설하는  
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음

\* 형사처벌(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), 과징금(부당이득의 1.5배)

- ②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, 금감원, 거래소는  
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 
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 
불건전 영업·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 
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임

□ 마지막으로,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를 마련해  
우리나라 주식시장을  
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음

- ①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,  
②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,  
③IPO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,  
④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통해서
- 투자자에게는,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 
시중 부동산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
- 기업에게는,  
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써  
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 
과감하게 혁신하여 가겠음

□ “고객은 왕이다”라는 말로 유명한  
미국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는  
“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하면 기회는 스스로 찾아온다”고 했음

- 정부, 증권유관기관, 한국 투자자들도  
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 
맡은 바 책임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임